

뉴 질랜드육용 무엇이 양육인을 분노케 하는가

- 국내 양육시장 독점 야욕, 생산자 배제된 정부 협상 -

연간 40만kg의 세계 최대 육용생산국인 뉴질랜드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두차례씩 개최되는 한·뉴 경제공동위원회(양국 외교통산부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절편육용 수입허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절편육용 수입문제는 올해 열린 경제공동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의 육용품질 검사관 파견 조건 제시를 거부했던 뉴질랜드가 이번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우리 정부가 절편육용 수입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몇 가지 절충사항만 조정되면 곧 값싼 뉴질랜드 절편육용이 국내로 물밀 듯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 저가 가격 공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많은 양육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절편육용 수입이 허용될 경우 그 가격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고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되는 뉴질랜드 양육산업의 특성상 육용은 부가 수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에도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육용이 절편의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값싼 하대부위도 수입이 가능해 그 가격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여건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어 육용 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양을 실시하는 국내 양육산업은 가격측면에서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질 못한다. 여기에 북미, 중국, 러시아 등 대량의 육용 생산국가가 뉴질랜드와 평등한 수입을 요구할 경우 그것을 거부할 명분조차 없어 바야흐로 국내 육용시장은 외산 절편육용으로 판을 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산 육용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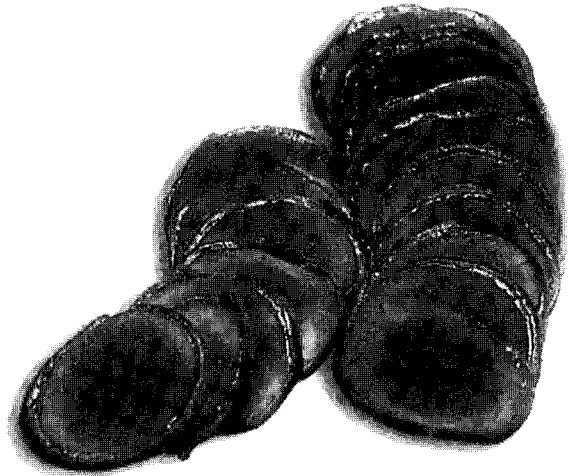
◇ 순록뿔 혼입 개연성 높아

국내에서 녹용으로 인정치 않는 순록뿔의 혼입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녹용을 절편하여 유통시킬 경우 사슴의 품종과 녹용의 품질을 감별할 수 없어 가짜 녹용인 순록뿔이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암·수 모두에게서 뿔이 나오는 순록은 현재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지역에 대량 서식되어 방대한 양의 뿔을 생산하여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자국내에는 순록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맘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혼입이 가능하며 제3국을 통해 순록뿔이 유입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는 것이 국내 양륙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절편 녹용 수입은 순록뿔이 자유롭게 혼입, 유통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녹용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상품 가치 하락은 물론 녹용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상황에 직면, 그 불뚱은 고스란히 국내 양륙업자에게 떨어지게 된다.

◇ 의약품에서 축산물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용은 축산물로 인정, 농가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 등의 외산 녹용은 의약품으로 인정, 한의약업소에



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은 국내 양륙업자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몇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뉴질랜드는 국산 녹용이 축산물로 냥당 2-3만원선에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부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절편녹용 수입이 허용되면 이후 축산물로서의 인정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절편녹용 수입이 허용되고 이후 축산물로 인정까지 받게 되는 날에는 인근 소규모 상점에서도 예쁘게 포장된 뉴질랜드 녹용을 손쉽게 만나게 될 것이다. 집앞 상점에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녹용을 시골에 위치한 국내 양륙농가까지 찾아가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 수입 녹용 불법 유통 급증

원료 의약품 및 가공수출용 식품원료로 수입된 녹용이 용도의 불법 유출되어 국산 녹용으로 둔갑,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됨으로써 국산녹용 가격 하락 및 판매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전지상태로의 수입녹용은 외관상 어느 정도 국산녹용과 식별이 가능해 적발해 낼 수 있지만 절편 가공된 것은 외관상 국산과 식별이 불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만 바꾸는 것으로 간단히 국산녹용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뜻으로 가뜰이나 색출이 어려운 불법 유통 수입녹용에 힘만 실어주는 꼴만 된다. 따라서 불법으로 수입녹용을 유통시키는 자는 더욱 양산될 것이며 그 수량 또

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내 녹용시장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는 물론, 저질·가짜 수입녹용의 불법 유통으로 국민 건강 또한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생산자 배제된 그들만의 협상

절편녹용 수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내 녹용생산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국내 녹용생산자들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주무부서 관계자들만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양륙인은 분개하고 있다. 물론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양륙산업 붕괴로 이어질 중차대한 문제에 이해 당사자인 양륙농가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절편녹용 수입이 국내 양육업자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 및 그 대책, 소비자에게 끼칠 보건상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양육인을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다.

◇ 뉴 정부의 강압적 수입 요구

협상에 임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고압적 자세도 양육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내 양육인의 지속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요하게 절편녹용 수입 요구를 들고나 오는 뉴질랜드의 자세가 국내 양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술 더떠 올해에는 WTO(국제무역기구)를 운운하며 공격적으로도 절편녹용 수입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들의 뻔뻔스러운 태도가 양육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뉴질랜드가 본회에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허용 요구가 WTO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된다”며 한국은 뉴질랜드 생산자들이 절편녹용을 수출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된 「뉴질랜드 양육위원회」가 정부차원의 막강한 로비를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야말로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WTO 정

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강압적 자세는 오히려 국내 양육인만 더욱 자극, 적극적이고 강력한 쫓기대회가 되는 밑거름이 될 뿐”이라 말했다.

◇ 양육산업 지원 없는 정부기관

현재 국내에는 30여만두의 사슴이 2만 양육인의 손에 의해 사육되고 있으며 사슴 두수 및 사육호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 돼지, 닭 등 주요축종이 정부의 넉넉한 지원아래 발전해 온 것과는 달리 사슴은 정부의 별다른 정책 지원 없이 오로지 자구 노력만으로 지금의 성장을 일궈냈고 시장을 넓혀왔다.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녹용의 자급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국내 양육산업 부흥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사슴을 축산법상 개량가축 축종으로조차 등재시키지 않아 그 외적 성장률에 비해 질적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주요축종에 국한된 지원 및 정책 수립 등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안정적인 축산업으로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범 양육인 쫓기대회에서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의 완전 철회와 더불어 사슴을 주요축종으로 등재시키고 축산법상 정식 개량가축으로의 지정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안국영**